

Xin chào!



4월호 Tháng 4

목차

1. 활동

2. 심

- 여행
- 투표
- 구찌 터널
- 졸업식
- 친구들과의 시간
- 세월호 추모

3. 되돌아 보기



활동

1. UTE-동아 한국어센터

ĐT: (08)-38 972 496, E-mail: hocbv@hcmute.edu.vn



TRƯỜNG ĐẠI HỌC SƯ PHẠM KỸ THUẬT TP. HCM



TRUNG TÂM HÀN NGỮ HỌC DONG A - UTE

동아 대 - UTE 한국어 베트남어 센터

Tel: (08) 3722 5984

Đ/C: Phòng A3-108 Tòa Nhà Trung Tâm

www.daotaotienghan.edu.vn



1. UTE-동아 한국어센터



1. UTE-동아 한국어센터



냇술을 즐기는 UTE친구들^^;;

1. UTE-동아 한국어센터

UTE 동아 한국어센터는 동아대학교와 호치민 기술대가 협력하여 설립된 한국인 센터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다. 우리는 여기서 초급 2반, 3반, 중급반을 맡아 학생들의 원어민 선생님이로 활동한다. 처음엔 이곳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 덕분에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UTE에서는 우리에게 발음교정과 말하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를 평소와는 달리 포박포박 교과서체로 말해야 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베트남에 왜 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어색해진 우리의 말투는 UTE체를 만들어냈다.

여기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어보면 한국이 좋아서 라는 답변이 가장 많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했고 k-pop의 영향인지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적도 많았지만 항상 한국을 좋아해주는 학생들 덕분에 나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현실과 다른 부분도 많기에 마음 한 켠에 불편함도 있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로맨틱하고 멋진 나라, 살기 좋은 나라지만 실제로 이는 허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여나 이 친구들이 한국에 갔을 때 이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 입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들었다. 그래도 우리의 활동이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2. 스마일 레스토랑



2. 스마일 레스토랑



2. 스마일 레스토랑

호치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스마일 레스토랑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곳으로 매일 2천동(한화: 1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역할은 주로 설거지(2명), 배식(1명), 서빙(1명), 잔반처리(1명)로 나눠 봉사하고 있다. 스마일 레스토랑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기 위해서 가지만, 정작 돌이켜보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온다는 생각이 든다.

#1. 제대로 된 식사 한끼를 제공한다는 것

스마일 레스토랑은 몸이 불편한 사람부터 한창 많이 먹을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매일 300~400명의 사람들이 식사하는데 이보다 사람이 몰릴 때면 준비한 음식이 떨어져 급히 밥을 다시 짓거나 라면을 끓여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식당에 찾아온 모든 분들이 제대로 된 밥 한끼를 드시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2. 스마일 레스토랑

#2. 삶을 대하는 태도

휠체어를 직접 끌고 식당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런 분들께서는 식판에 밥을 담아 가져다 드리는데 그 중 휠체어를 끄시면서 복권을 파시는 분이 기억에 남는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모습에 삶을 대하는 태도, 나는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갖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평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직접 식당을 와야 하고, 생계를 직접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보면서 국가 복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3. 식당 직원 분들과 봉사자들

식당 배식이 시작되기 전 짬을 내어 팀원들끼리 로컬 카페에서 연유커피를 자주 마신다. 카페가 식당 바로 옆에 있어 식당 직원 분들과 마주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 커피 값을 지불해 주셔서 죄송스러울 때가 많다. 기회가 될 때 우리가 그분들께 차를 대접할 수 있기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이다.

Vuong이라는 남학생 봉사자가 있다.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선해 보여서 그 미소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든다. 말 한마디만 건네도 환한 웃음으로 답해주는 Vuong이 있어 스마일 레스토랑은 오늘도 활기가 넘친다.

3. 흥안 유치원



아직 우리는 어색한 사이

3. 흥안 유치원

↓유치원에 있는 수십 대의
↓선풍기 청소중



난이도★★★★★ 밥 먹이기

3. 흥안 유치원



3. 흥안 유치원

1세 2세 3세 5세 6세로 나누어져 있고
총 15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흥안유치원.

이 곳에서 하루의 시작은 평소보단 조금 이르게 시작된다. 5:30에 일어나면 6시부터 아이들은 등원을 시작한다.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 유치원으로 들어온다. 한국의 유치원과 별반 다른 것 없이 우는 아이들도 있고 씩씩하게 인사하고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등원 한 후에는 아침체조를 하고 각 반으로 흩어져 아침식사와 오전수업을 하고 오전 10시에 이른 점심식사 후 낮잠을 잔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일어나 간식을 먹고 오후 수업을 하며 3세가 넘으면 한 돌씩 부모님이 찾아오시고 아이들은 즐겁게 돌아간다.

3. 흥안 유치원

흥안 유치원에서 일정을 함께하며 느끼는 것은

1. 한국의 시설과 비교해선 안되겠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위생 상태나 청결도가 좋지 못하다는 점
2. 거의 모든 아이들의 치아가 많이 썩어있다. (식사 후에 양치와 같은 청결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3. 원생 수에 비해서 선생님 수가 적어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업무 과중
4. (3으로 인해서겠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체벌의 빈도 수와 강도가 잦고 강하다.

이 정도였는데 팀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고작 주1회 방문하는 우리로써는 아이들의 체벌문제나 유치원의 청결문제에 크게 개입하기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아이들의 위생교육(양치질, 손 씻기) 과 같은 부분은 유치원과의 사전 회의록 통해 교육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4. 레딘친 초등학교



4. 레딘친 초등학교



4. 레딘친 초등학교

Le dinh chin primary school의 학생들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활동이었다.

우리는 이 활동에서 주로 영어 동요와 함께 율동을 섞어 넣어 아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영어를 받아 들일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간 중간 게임을 섞어 아이들의 관계 발전과 집중력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4. 레딘친 초등학교

이 활동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 하자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첫 번째로는 언어로 인해 활동에 지장이 있었다. 한글로 가르쳐도 어려움을 느꼈을 텐데 베트남어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참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베트남YMCA에서 봉사자들을 보내주어 번역을 부탁하고 수업에 함께 참여했다. 두 번째로는 통제를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우리가 배웠던 베트남어로는 친구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거의 모든 상황을 베트남 봉사자들이 해결해 주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활동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다. 고민들의 끝은 항상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자."란 이야기들이 나왔고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더 나은 관계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고 또 노력했다. 욕심인지 몰라도 수업의 내용이 항상 부족한 거 같았지만 친구들은 매우 만족을 하며 따라와 주었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힘을 얻곤 했다. 또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들에게 달려와 주거나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을 바라 볼 때면 뿌듯함과 회복함을 얻는 것 같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활동 중 하나이다. 많은 기대와 또 노력으로 나아가야겠다.



스вим

1. 여행

후에에서 호치민팀 공식 포즈



1. 여행

후에에서 다낭으로 타고 간 기차
유명한 하이반고개의
절경을 볼 수 있었다.



1. 여행



R

A

O

N



라온아피플 향한
넘치는 애정♥



A

T

T

I

1. 여행



미케 비치

1. 여행



1. 여행



“The beauty of silence”

찾잔에 물을 따르는 소리도 조심스럽게 느껴졌던 티하우스

호이안에서 방문한 리칭아웃 티하우스

리칭아웃은 티하우스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을 고용하고, 공방에서는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판매하여 그들의 자활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다.



1. 여행



1. 여행

다낭에 위치한 바나 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를 타고
산 속으로 들어가면 신세계가 펼쳐진다.



원숭이1 동혁원숭이 원숭이2



유정 - 마법지팡이
현경 - 날으는 빗자루
동혁 - 해리포터 흉터

1.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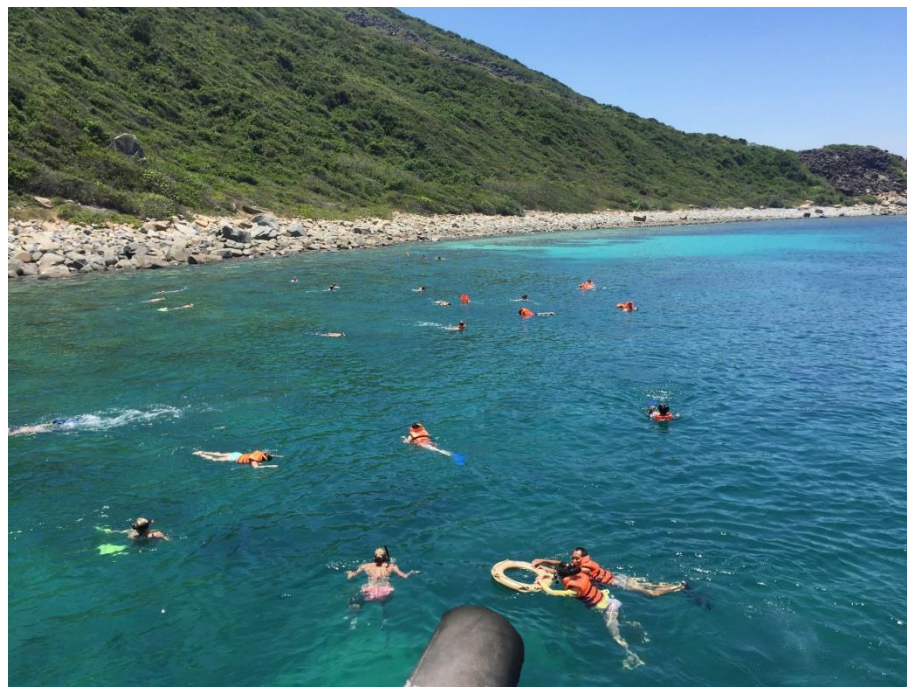


다낭-나짱 슬리핑기차 8시간 소요
처음 타본 슬리핑기차는 너무나 신기하고
불편했다..

1. 여행



나짱의 바다는 너무나 예뻐다.
하루종일 스노클링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보니
얼굴이 새까매져있었다.(절망과 절규)



1. 여행

우리는 한 달 동안의 베트남어 수업 일정이 끝나고 휴가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평소 베트남 봉사자 친구들에게 추천받은 베트남 중부로 떠나기로 했고, 배낭 하나씩 매고 호치민을 떠났다. 휴가 동안 호치민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후에에서는 베트남의 오랜 역사가 담긴 아름다운 유적지들을 봤고, 호이안에서는 아름다운 야경을, 나짱에서는 깨끗한 바다를 즐겼다. 또 길에서 여행자들과 현지 사람들을 만나며 정말 큰 도시였던 호치민을 벗어나 또 다른 베트남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사실 휴가 기간 동안 마음을 놓고 완전히 편하게 지내지는 못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다. 휴가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코디네이터인 Hanh의 집에서 Yen간사님과 우리의 휴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불편했던 감정들과 회의감에 대해 말했다. 우리의 말에 대해 Yen간사님은 휴가가 너희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너희가 호치민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하는 것은 너희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놀러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Yen간사님의 말을 듣고 다시 많은 생각을 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현지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준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휴가를 통해 다음 활동에 대한 에너지와 의욕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휴가 동안의 경험은 UTE에서 베트남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 특히 호치민은 대도시라 타 지역에서 공부하러, 일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었다.

1. 여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휴가를 통해 팀원들에 대해, 팀워크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볼 수 있었다. 팀원들과 매일매일 함께하면서 서로의 차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함께 휴가를 떠나니 그 차이들이 더 와 닿았다. 어디로 휴가를 갈지 부터 시작해 다음 끼니를 어디에서 해결할지 까지 휴가는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 모든 선택들에 우리 다섯 명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매번 문제였다. 누군가가 더 양보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타협이 힘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거나, 서로 다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사실 '팀워크'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모르겠다. 팀이라서 개인 의견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팀이니까 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함께여서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지 못한 기쁨도 알게 되고 함께 공유할 수도 있다. 유적지에 대해 사전 공부를 열심히 했던 형민이가 아니었다면 놓치고 지나갔던 장소가 있었을 것이다. 여행 경험이 많은 동혁이가 없었더라면 싸고 좋은 숙소를 찾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붙임성 좋은 예지가 없었더라면 쪼리와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흥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늘 예쁜 사진을 찍어주는 유정이가 없었으면 우리는 수많은 인생사진들을 건지지 못했을 것이다. 또 길눈이 밝은 현경이가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분명히 길을 잃었을 것이다. (하하하하)

그래서 싫을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팀이어서 좋다. 휴가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 여러가지를 배우고, 생각하고 느꼈던 시간들이었다.

2. 투표



2. 투표

우리는 4월 1일에 호치민 시내에 위치한 호치민 한인회관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했다. 팀 막내인 유정기와 현경이는 설레는 첫 투표를, 예지, 동혁이, 형민이는 호치민에서 색다른 투표를 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한국에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국외에 있지만 잊지 않고 투표를 했다. 특히 이번 총선은 20대 선거율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우리도 선거율 상승에 기여했다!!)

베트남 팀 팀원들은 '자랑스럽다.', '살면서 해 보기 어려운 경험인데 좋은 경험, 잊지 못할 투표로 남을 것 같다.' '설현이 예뻐다.' '과자가 맛있었다.' '첫 투표여서 설레고 좋았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3. 구찌 터널(Cu Chi Tunnels)

이 남자가 터널에 들어가는 방법



3. 구찌 터널(Cu Chi Tunnels)

Thanh(22) →
먼저 구찌 터널
가자고 제안했다가
가장 먼저 후회 중



구찌 터널을
통과하는 모습

3. 구찌 터널(Cu Chi Tunnels)

우리의 친구 Thanh과 함께 구찌 터널에 갔다. 구찌 터널은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군의 승리요인 중 하나로 굉장히 작은 통로의 땅굴이 약 240km정도 연결되어 있었다. 베트남인들보다 몸집이 큰 우리팀원들은 간신히 땅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전쟁 당시 베트남군의 다양한 모습들을 관람할 수 있었다. 직접 들어가보니 개미집처럼 땅굴 안에 모든 생활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고 통풍시설도 생각보다 잘 되어있었다.

구찌 터널에서 참 신기했던 점이 가이드 분께서 금방 입구를 보여주고 입구의 뚜껑을 덮자마자 우리는 그 입구를 다시 찾을 수 없었다. 그만큼 감쪽같이 만들어져 있었고 경이로웠다. 이를 통해 구찌 터널을 만든 베트남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으며 그곳에 들어가본 우리도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4. Hanh의 졸업식

Hanh(22)

호치민팀 담당 코디네이터

겸 가족

겸 베스트 프렌드

겸 베트남어 선생님

특기 : 한국어 욕

특징 : 서울대급의 학교를

졸업한 보기보다 인재



엄청난 인파의 학위수여식.. 0 0 0

4. Hanh의 졸업식



Hanh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 졸업축하 파티. 싱싱한 해산물 HOT POT !

4. Hanh의 졸업식

우리의 코디네이터인 Hanh의 졸업식에 참여했다. 또 다른 친구인 Duy도 보았고 베트남의 졸업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베트남의 대학 졸업식은 웨딩 홀과 같은 장소를 빌려서 진행되는데 학위 수여식이 끝나고 난 후에는 혼돈의 장이 되었다.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한을 위해서 우리는 근처의 카페에서 한을 기다렸고 그 후에 홈스테이를 위해 한의 집으로 이동했다. 한의 집에는 오늘 졸업한 한을 위한 Hot Pot 파티가 있었다.

베트남에서 졸업식은 꽤 큰 행사이다. 졸업 당사자를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 주변 이웃들까지 함께 모여 성대한 저녁 식사를 한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또한 예전에는 이웃의 경조사를 함께하며 이웃사촌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조금 아쉬웠다. 한창 인기 있던 응답하라 1988 등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웃과의 소통을 그리워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사회의 현실이 더욱 마음을 아쉽게 했다.

5. 현지 친구들과의 시간

Duy와 Duoc Hanh 그리고 새로운 친구
두 명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베트남과 한국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이스페이퍼에 야채와 고기를 함께
싸서 소스에 찍어먹는 베트남 요리
이곳은 고기가 좀 부실한 듯 하다.



5. 현지 친구들과의 시간

주말에 베트남어 수업을 가르쳐준 자원봉사 친구들과(Duy, Hanh)과 현지 친구들과 같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카페에서 밀크티를 마시고 저녁에 로컬 식당에서 반 짱이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싱싱한 야채에 삶은 돼지고기를 곁들여 먹는 방식인데 부들부들한 고기에 같이 먹는 소스 맛이 독특해서 맛있게 먹었다. 😊

처음 본 친구들과 베트남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함께 드라마나 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야기를 하다가 베트남과 한국의 청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국의 삼포세대, 오포 세대를 이야기 해주며 큰 씁쓸함을 느꼈고 아직 베트남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고 사회에 일 할 곳이 많이 열려있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였다.

6. 세월호 2주기 추모의 시간



6. 세월호 2주기 추모의 시간

팀원들과 세월호 2주기를 맞으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세월호 추모를 기념해 어떠한 행위로 추모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팀원들과 의견을 나눴었다. 하지만 진정한 추모의 마음가짐 보다는 어떠한 행위에 집중하는 서로의 모습이 보이자 우리는 불필요한 행위를 내려놓고 온전히 추모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Bonus. 우리의 일상



친구 결혼식에 가는 Hanh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예쁘게 꾸며주었다.
우리 딸랑구 Hanh 넘넘 예쁘쥬~~?^^♥

Bonus. 우리의 일상



〈요즈음 현경이의 일상〉
음악을 사랑하는 감성 현경
결국 기타를 구매하였고
주말마다 방에서 버스킹을 하며
강제로 팁을 요구한다는 소문이..



Bonus. 우리의 일상



마이(Mai) 꽃이 피었습니다!
유정이의 베트남 이름인 Mai
옆의 노란 꽃을 뜻하는 이름이다.
노란 꽃을 볼 때 마다 유정이는 자신이 진
짜 마이꽃인양 뛰어가서 꽃 옆에서 새로츨
한 표정을 짓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음 ㅋㅋ
(빨간 꽃은 마이꽃 아님)

Bonus. 우리의 일상



숨막히게 더운 요즘의 날씨
베트남은 지금 비가 오지 않아 중부 쪽은 특히 가뭄이 심하다.
처음엔 태양을 온몸으로 즐겼지만 이젠 피하고 싶다
비 좀 내려라 제발.. (베트남 와서 비 한번도 못 봄)

Bonus. 우리의 일상



베트남YMCA 바로 아래 층에는 신기하게도 이벤트회사가 있다.
행사를 준비하는 이벤트회사 덕분에 때론 신나는 음악이 종일 나올 때도 있고 사진처럼 신기한 놀이기구들이 집 앞에 갑자기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
놀이기구를 점검하는 이벤트회사 직원들의 허락을 받고 아침부터 신나게 암벽 등반을 하는 건강한 유정이!
사진은 추락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 낙하

Bonus. 우리의 일상



우리와 가장 친한 YMCA옆 맥주공장 손자와 세탁소집 아들
(세탁소집 아들 화난 것 아님 오랜만에 보서 극도의 기쁨을 표출하는 중 ㅎㅎ)

Bonus. 우리의 일상



메뉴 고를 때 가장 예민한 두 명
말은 걸지 마라 그래도 촬영만은 허락한다.

여자 멤버들이 가장 애정하는 대학로
저렴하고 많은 의류 악세사리류 모든 것이 다 있다!
왼쪽 사진에서 보이는 노란 간판이 준비한 곳은 먹거리천국.
로컬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현지음식을 즐길 수 있다.



← 대학로에서 산
짹 크록스
(feat. 발냄새 유발)

Bonus. 우리의 일상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동혁이의 손맛 첨가된
찰진 #비빔국수

베트남에 온 후 동혁이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

.
. .
. .
. .
. .
. .

비빔국수 잘 비비려고..

Bonus. 우리의 일상



유난히 사진 분량이 적어 팀원들만 속상한 형민이(본인은 생각없음)
카메라만 갖다 대면 돌이 되는 탓에 사진을 건지기가 어렵다
제발 카메라보고 이렇게 좀 웃어주라 제발...

Bonus. 식사를 합시다



Bonus. 식사를 합시다



Bonus. 우리의 일상





되돌아 보기



Minh

1. 베트남어 수업 마무리

베트남어 수업이 마무리 되었다. 5달의 활동 기간 중 1달을 차지한 만큼 현지어 습득에 중요성을 갖고 임했지만, 내 언어수준은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현지어 습득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2. 쉬 기간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중부 베트남 지역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의 역사, 문화를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3. 활동소감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수 투성이였지만, 팀원들과 잘 협의해 나간다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4. 개선할 점

활동을 하면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아마 활동 내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5. 고민

부족함은 채움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 외 부분은 과감히 비우고 싶다. 행동에는 그 무게를 담아야 하지만 마음은 가벼움을 간직하고 싶다.



Mai

쏟살같이 지나간 3월만큼 4월도 순식간에 지나갔다. 제대로 활동을 시작한 달이기도 하고 Y에서 보다 다른 곳에서 눈뜨는 날이 많았던 달이기도 했다. Y에서 휴가를 받았을 때도 우리는 크게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컸었고, 그만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걱정들이 많았던 한 달이었다. 활동이 시작된 후 유치원, 초등학교, 한국인 센터를 갈 때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는 관심들과 환대들에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고마움도 많이 느끼고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감도 많이 생겼던 것 같다. 그리고 가끔 나에게 "베트남 사람 같아." 라고 말해주는 것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아무 말도 못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그냥 웃고 만다. 그만큼 친근하게 생각해준다는 것에 고맙기도 하고 까매진 피부가 이곳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Hoa 이모가 까매져서 못생겨졌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앞으로 남은 3개월도 지금처럼 후회 없이 재밌게 살다 가고 싶다.



Chi

우리의 담당 코디네이터인 Hanh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던 날 옥상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Hanh이 두 달간 어땠는지 듣고 싶다 하여 말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이곳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매일이 감사하지만 때론 죄책감을 느낀다고 전해주었다. 나는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다 하니, 내 이야기를 한참 들은 후 Hanh이 해준 이야기에 내 마음이 참 흥분해졌다. “맞아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나조차도 전기가 없는 환경에서는 살아 본 적이 없어. 살 수도 없고. 하지만 니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산적이고 봉사자에 걸맞도록 자발적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진 마. 꼭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더라도 지금 나(Hanh)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게 기쁨을 전해준다면 그 또한 봉사라고 나는 생각해. 니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니가 무언가 더 많이, 더 잘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 인 거야. 걱정 마 넌 잘 하고 있어.”

너무나 고맙다. 옥상이 어두워서 내색은 않았지만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마음에 큰 짐을 덜어주는 말이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모두에게 짐이 되는 것만 같았는데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해주는 말에 정말 안심이 되었고, 대상이 누가 되던 간에 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봉사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순간 머리가 멍했다. 가장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왜 난 미처 알지 못했을까. 앞으로 다가 올 활동에 미친 듯이 전념해야지 라고만 생각했던 내가, 마을에선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니 활동지에서만 관계를 형성하려던 내가 부끄럽기도 했고,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활동을 이어나가면 될 것인지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Linh

1.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도로에 엄청나게 많은 오토바이들을 보고 마냥 신기하게만 생각했다. 지금은 오토바이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집과, 각자의 삶과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상상하고 있다. 그냥 '베트남 사람들'으로만 보였던 이곳 사람들이 이제는 '베트남', '한국'이라는 국적을 떠나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개개인으로 보인다. 별거 아닌 변화 같지만 신기하고 다르게만 보였던 호치민 사람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내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새삼 느껴지는 4월이다.

2. 4월은 휴가를 가기도 하고, 활동을 시작하기도 해서 유난히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난 달이었다. 조금 낯을 가리는 내 성격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만 하는 상황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서는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면 몸이 빨리 피곤해지기도 했다. 그래도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힘듦과 불편함보다 그냥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다시 친구들을,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Linh vui lam!!

3.

매일매일 호치민에서 함께 살아가는 팀원들에게는 늘 감사하다. 팀원들이 없었다면 이곳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또 우리에게 늘 언니 같은, 친구 같은,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 주는 코디네이터 한과,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Nhan 삼촌, Y식구들 모두에게 감사하다.



Dong

활동을 제대로 시작한 달인 만큼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나를 찾아왔다. 처음 활동들을 시작할 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은 부담스러움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없었던 나는 모든 활동의 시작에서는 비슷한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다. 하지만 활동을 시작하고는 그러한 부담스러움과 긴장감보다는 잘 하고 싶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잠겨버렸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은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룰 수 없다.”란 말처럼 내게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해서 피해버렸더라면 지금 활동지에서 즐기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남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번 활동의 시작을 통해 나는 또 한 번의 성장을 했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것에 욕심이 생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계속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고 그곳에 이르고 싶다.

Hẹn gặp lại

다시 만나요

